2025학년도

한림대학교 구성원의 차별적 언어 표현 인식 조사 보고서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hallym human rights center

연구조사 결과보고서

한림대학교 구성원의 차별적 언어 표현 인식 조사

조사기관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조사기간	2025.11.10. ~ 2025.11.25.
조사대상	한림대학교 구성원(N=207)
연구책임자	홍일선(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인권센터장)
연구원	장윤희(한림대학교 인권센터 직원/주임)

2026. 7.

한림대학교 인권센터

※ 본 연구는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요 약

▌조사 목적

본 조사는 한림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잠재적 차별 언어 표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문항별로 파악하고, 이를 세대 및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내 구성원의 포용적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다양성 존중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

첫째, 조사 대상자는 대부분의 차별적 언어 표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다수의 응답자가 '다소 차별적이다(4점)' 또는 '매우 차별적이다(5점)'를 선택하여,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표현에도 차별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영역별 분석 결과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관련 표현(80.8%)이 가장 높은 차별성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표현(75.4%),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62.7%), 장애 관련 표현(62.3%),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6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집단의 능력이나 가치를 직업, 학력, 출신 배경, 성별 또는 장애 여부와 연결하여 일반화하는 표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세대별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40~50대에서 차별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10대는 일부 표현에 대해 중립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표본 규모가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성별 분석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적 언어 표현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장애 관련 표현과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에서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비교적 크게 확인되어,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별성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섯째, 주관식 응답 분석 결과 본 조사의 5개 영역 외에도 MBTI 성격유형에 대한 낙인이나 장애 관련 용어의 비유적 오남용과 같은 새로운 차별 표현 유형이 확인되었다.

▌시사점

본 조사 결과는 대학 구성원들이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포함한 언어 표현의 문제성을 전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부 표현은 사용 맥락이나 사회적 인식에 따라 차별 여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 포용적 언어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에는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함께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대체 표현을 안내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연령대별·성별 표본의 균형을 확보하고 새롭게 확인된 차별 표현 유형을 조사 범위에 포함하는 등, 후속 조사의 대표성과 포괄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목 차

Ⅰ. 조사 개요 1

Ⅱ. 조사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2

Ⅲ. 조사 결과 및 분석 2
1.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표현 2
2.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 6
3.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 9
4. 장애 관련 표현 13
5.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관련 표현 16
6. 기타 자유서술 응답 분석 20

Ⅳ. 조사의 한계 20

Ⅴ. 결론 및 제언 21

[부록]
차별적 표현 인식 조사 설문지 23

Ⅰ.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현대 대학 사회는 다양한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고 소통하는 다문화적·다세대적 공간이다. 이에 따라 구성원 간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포용적 의사소통과 다양성 존중 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잠재적 차별 표현은 명시적인 혐오·비하 표현과 달리 농담이나 관습적인 대화의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은 차별적 의미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나, 표현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정서적 소외감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공동체 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조사는 한림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상 속 잠재적 차별 표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문항별로 파악하고, 이를 세대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아울러 자료 분석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 역시 유의미하게 나타나, 세대별 분석과 함께 성별 분석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의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포용적 언어문화 확산과 다양성 존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조사 대상 및 방법

본 조사는 한림대학교 구성원(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 207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온라인 설문 플랫폼인 네이버폼(NAVER Forms)을 활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고, 응답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무기명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25일까지 총 16일간이었으며,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외모 및 신체 조건, 연령 및 세대, 장애,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등 5개 영역의 잠재적 차별 표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객관식 28문항과 주관식 1문항 등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객관식 평가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 5점: 매우 차별적이다)를 적용하여 응답자의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3. 조사 윤리 및 정보 보호 원칙

첫째, 설문 문항에 포함된 차별적·부정적 표현 예시는 응답자의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시되었으며, 특정 표현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조사 참여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였다.

둘째, 조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또한 수집된 자료는 개인별 분석이 아닌 통계적 분석 및 결과 도출에만 활용하였다.

셋째, 모든 조사 참여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참여자는 조사 진행 중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였다.

넷째, 본 조사 결과는 학내 포용적 언어문화 확산과 다양성 존중 정책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Ⅱ. 조사 참여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조사에는 총 207명이 참여하였으며, 응답자의 연령대별 및 성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 백분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표기함.)

1) 연령대별 분포

10대는 6명(2.9%), 20대는 132명(63.8%), 30대는 33명(15.9%), 40대는 23명(11.1%), 50대는 11명(5.3%), 60대 이상은 2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20대가 전체의 63.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학부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성별 분포

여성은 140명(67.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66명(31.9%)으로 나타났다. 기타 또는 응답을 원하지 않은 참여자는 1명(0.5%)이었다.

▌Ⅲ. 조사 결과 및 분석[1)2)]

1.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표현

1-1. 설문 항목별 응답 결과 분석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표현 8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75.4%가 '다소 차별적이다(4점)' 또는 '매우 차별적이다(5점)'라고 응답하여 성별 고정관

1) 세대별·성별 응답 결과는 각 영역별 문항 수만큼 응답이 반복 집계되므로, 표에 제시된 응답 건수의 합은 전체 응답자 수(207명)보다 많음.(예: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영역의 경우 응답 건수 합계는 최대 1,656건(207명×8문항))

2) 성별 분석은 '기타 또는 응답하고 싶지 않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1명으로 집단 간 비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남성 및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념이 담긴 언어 표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별로는 (7)번 「아가씨가 나왔네... 이건 전문가가 나와야 하는데.」가 4·5점 합산 응답률 89.9%(18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별을 이유로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특정 직업의 전문성을 성별과 연결하는 표현에 대해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2)번 「역시 여직원이 있어서 사무실이 화사하네.」가 87.9%(182명), (3)번 「여자 부장인데, 일 정말 잘해!」가 87.4%(181명), (5)번 「남자가 왜 이렇게 소심해.」가 85.5%(177명)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여성의 역할을 외모나 분위기와 연결하거나, 여성의 업무 능력을 성별과 연관하여 평가하고, 남성에게는 특정 성격을 기대하는 등 성별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어 차별적인 표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1)번 「여자치고 운동 정말 잘하네요.」와 (4)번 「남자인데 엄청 꼼꼼하시네요.」는 각각 71.5%(148명), 71.0%(147명)로 전체 평균(75.4%)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두 문항 모두 특정 성별에게 기대되지 않는 특성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의 표현으로, 응답자 대다수가 이를 차별적 뉘앙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8)번 「에겐남, 테토녀」는 4·5점 합산 응답률이 43.5%(90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3점)' 응답도 38.8%(70명)로 비교적 높았다. 이는 해당 용어가 최근 온라인과 SNS 등에서 유행어 또는 신조어의 형태로 사용되면서 차별적 의미보다 일상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여전히 차별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사회적 인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번 「와~ 남자 간호사 보기 드문데.」는 4·5점 합산 응답률이 66.2%(137명)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를 여성 중심 직업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일부 남아 있으나, 해당 표현을 단순한 사실 언급이나 희소성에 대한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응답도 존재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성별에 따른 능력 평가나 직업적 전문성, 성격을 일반화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한 반면, 최근 신조어나 직업의 성별 비율을 언급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표현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사회적 사용 맥락과 익숙함에 따라 차별성 인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설문 항목별 응답 결과

문항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다소 차별적이다.	5. 매우 차별적이다.	4+5점 합산
(1) 여자치고 운동 정말 잘하네요.	5명 (2.4%)	16명 (7.7%)	38명 (18.4%)	80명 (38.6%)	68명 (32.9%)	**148명 (71.5%)**
(2) 역시 여직원이 있어서 사무실이 화사하네.	1명 (0.5%)	9명 (4.3%)	15명 (7.2%)	49명 (23.7%)	133명 (64.3%)	**182명 (87.9%)**
(3) 여자 부장인데, 일 정말 잘해!	3명 (1.4%)	6명 (2.9%)	17명 (8.2%)	65명 (31.4%)	116명 (56.0%)	**181명 (87.4%)**

(4) 남자인데 엄청 꼼꼼하시네요.	2명 (1.0%)	14명 (6.8%)	44명 (21.3%)	76명 (36.7%)	71명 (34.3%)	**147명 (71.0%)**
(5) 남자가 왜 이렇게 소심해.	3명 (1.4%)	6명 (2.9%)	21명 (10.1%)	73명 (35.3%)	104명 (50.2%)	**177명 (85.5%)**
(6) 와~남자 간호사 보기 드문데.	6명 (2.9%)	20명 (9.7%)	44명 (21.3%)	55명 (26.6%)	82명 (39.6%)	**137명 (66.2%)**
(7) 아가씨가 나왔네...이건 전문가가 나와야 하는데.	3명 (1.4%)	2명 (1.0%)	16명 (7.7%)	48명 (23.2%)	138명 (66.7%)	**186명 (89.9%)**
(8) 에겐남, 테토녀	16명 (7.7%)	31명 (15.0%)	70명 (33.8%)	37명 (17.9%)	53명 (25.6%)	**90명 (43.5%)**
전체	**39명 (2.4%)**	**104명 (6.3%)**	**265명 (16.0%)**	**483명 (29.2%)**	**765명 (46.2%)**	**1,248명 (75.4%)**

1-2. 세대별 응답 결과 분석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표현에 대한 세대별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차별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다소 차별적이다(4점)'와 '매우 차별적이다(5점)'를 합산한 응답률은 10대 43.7%, 20대 75.7%, 30대 73.1%, 40대 81.0%, 50대 83.0%, 60대 이상 81.3%로 집계되었다.

특히 40대 이상에서는 차별적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에 대해 비교적 높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50대는 4·5점 합산 응답률이 83.0% 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차별적이다(5점)' 응답 비율도 59.1%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성별에 따른 역할이나 능력을 일반화하는 표현에 대해 비교적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20대와 30대 역시 각각 75.7%와 73.1%가 해당 표현을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높은 인식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20대는 응답자 수가 가장 많은 집단임에도 4·5점 합산 응답률이 70%를 상회하여, 대학 구성원의 주된 연령층에서도 성별 고정관념이 포함된 언어 표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한편 10대는 4·5점 합산 응답률이 43.7%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보통이다(3점)' 응답이 4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해당 표현을 명확하게 차별적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중립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의미한다. 다만 10대와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표본 규모가 매우 적어 해당 결과를 전체 세대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을 차별적인 언어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40대 이상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세대와 관계없이 성별 고정관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다만 일부 연령층에서는 표현에 대한 해석과 수용 정도에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표 3-2.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세대별 응답 결과

척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1명 (2.1%)	18명 (1.7%)	17명 (6.4%)	2명 (1.1%)	1명 (1.1%)	0명 (0.0%)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3명 (6.3%)	71명 (6.7%)	19명 (7.2%)	7명 (3.8%)	4명 (4.5%)	0명 (0.0%)
3. 보통이다	23명 (47.9%)	168명 (15.9%)	35명 (13.3%)	26명 (14.1%)	10명 (11.4%)	3명 (18.8%)
4. 다소 차별적이다	11명 (22.9%)	304명 (28.8%)	74명 (28.0%)	60명 (32.6%)	21명 (23.9%)	13명 (81.3%)
5. 매우 차별적이다	10명 (20.8%)	495명 (46.9%)	119명 (45.1%)	89명 (48.4%)	52명 (59.1%)	0명 (0.0%)
4+5점 합산	**21명 (43.7%)**	**799명 (75.7%)**	**193명 (73.1%)**	**149명 (81.0%)**	**73명 (83.0%)**	**13명 (81.3%)**

1-3. 성별 응답 결과 분석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표현에 대한 성별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해당 표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차별적이다(4점)'와 ' 매우 차별적이다(5점)'를 합산한 응답률은 여성이 80.2%(898명), 남성이 65.0%(343명)로 나타나 15.2%p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매우 차별적이다(5점)'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1.2%로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남성은 35.4%로 나타나 여성이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언어 표현을 더욱 심각한 차별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1점)'와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2점)'를 선택한 비율은 남성이 각각 5.9%, 10.0%로 여성의 0.7%, 4.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표현이라도 남성은 차별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거나 일상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일부 존재함을 보여준다.

'보통이다(3점)' 응답 역시 남성이 19.1%, 여성이 14.6%로 나타나 남성이 차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거나 중립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하면,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이 포함된 언어 표현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표현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회적 영향을 체감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해당 표현의 문제성을 더욱 민감하게 인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은 동일한 표현을 관용적이거나 일상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성별에 따라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인식 수준에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성별 응답 결과

척도	남성	여성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31명 (5.9%)	8명 (0.7%)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53명 (10.0%)	51명 (4.6%)
3. 보통이다	101명 (19.1%)	163명 (14.6%)
4. 다소 차별적이다	156명 (29.5%)	325명 (29.0%)
5. 매우 차별적이다	187명 (35.4%)	573명 (51.2%)
4+5점 합산	**343명 (65.0%)**	**898명 (80.2%)**

2.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

2-1. 설문 항목별 응답 결과 분석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 4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0.3%가 '다소 차별적이다(4점)' 또는 '매우 차별적이다(5점)'라고 응답하여 외모와 신체 조건을 언급하는 표현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표현의 4·5점 합산 응답률(75.4%)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외모와 관련된 표현은 상황이나 의도에 따라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엇갈리는 경향을 보였다.

문항별로는 (2)번「살 빠지니까 인간 됐네, 완전 보기 좋다.」가 4·5점 합산 응답률 67.6%(140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체형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전 모습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차별적 표현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4)번「외모가 경쟁력이지.」는 64.3%(133명), (1)번「너는 우리 가게 비주얼 담당이잖아.」는 56.0%(116명)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표현들은 외모를 개인의 능력이나 경쟁력, 역할과 연결하여 평가하는 인식을 포함하고 있어, 응답자들이 외모 중심의 가치 판단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3)번「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소개팅 있어요?」는 4·5점 합산 응답률이 53.1%(110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3점)' 응답도 26.1%(54명)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해당 표현이 상대방의 외모를 칭찬하는 일상적인 대화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외모를 특정 상황이나 목적과 연결하는 고정관념으로 인식될 수도 있어 응답자 간 인식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보통이다(3점)' 응답이 23.2%로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표

현보다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외모와 신체 조건에 관한 표현은 발화자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 대화 상황 등에 따라 차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외모나 신체 조건을 개인의 가치나 능력과 연결하여 평가하거나 특정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차별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일상적인 칭찬이나 친근한 표현으로도 사용되는 일부 문항은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외모 관련 표현은 사용 맥락에 따라 차별성 인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4.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설문 항목별 응답 결과

문항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다소 차별적이다.	5. 매우 차별적이다.	4+5점 합산
(1) 너는 우리 가게 비주얼 담당이잖아.	13명 (6.3%)	27명 (13.0%)	51명 (24.6%)	43명 (20.8%)	73명 (35.3%)	**116명 (56.0%)**
(2) 살 빼니까 인간 됐네, 완전 보기 좋다.	9명 (4.3%)	16명 (7.7%)	42명 (20.3%)	48명 (23.2%)	92명 (44.4%)	**140명 (67.6%)**
(3)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소개팅 있어요?	16명 (7.7%)	27명 (13.0%)	54명 (26.1%)	42명 (20.3%)	68명 (32.9%)	**110명 (53.1%)**
(4) 외모가 경쟁력이지.	13명 (6.3%)	16명 (7.7%)	45명 (21.7%)	51명 (24.6%)	82명 (39.6%)	**133명 (64.3%)**
전체	**51명 (6.2%)**	**86명 (10.4%)**	**192명 (23.2%)**	**184명 (22.2%)**	**315명 (38.0%)**	**499명 (60.3%)**

2-2. 세대별 응답 결과 분석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에 대한 세대별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차별성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다소 차별적이다(4점)'와 '매우 차별적이다(5점)'를 합산한 응답률은 10대 20.8%, 20대 57.4%, 30대 59.1%, 40대 80.4%, 50대 77.3%, 60대 이상 62.5%로 집계되었다.

특히 40대는 4·5점 합산 응답률이 8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우 차별적이다(5점)' 응답 비율도 54.3%를 기록하여 외모와 신체 조건을 평가하는 표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50대 역시 4·5점 합산 응답률이 77.3%로 높게 나타나 중·장년층에서 외모 중심의 언어 표현을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와 30대는 각각 57.4%, 59.1%가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여 과반수가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는 본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포함된 연령층으로, 대학 구성원의 주된 연령대에서도 외모를 평가하거나 신체 조건을 언급하는 표현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10대는 4·5점 합산 응답률이 20.8%로 가장 낮았으며, '보통이다(3점)' 응답이 62.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외모 및 신체 조건과 관련된 표현을

차별적인 언어로 명확히 인식하기보다는 일상적인 대화나 칭찬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시사한다. 다만 1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 응답자 수가 매우 적어 해당 결과를 전체 세대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에 대한 차별성 인식은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40~50대에서 높은 수준의 문제의식이 확인되었다. 반면 20~30대는 과반수가 차별적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였고, 10대에서는 중립적인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외모 관련 표현의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 경험과 사회적 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5.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세대별 응답 결과

척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2명 (8.3%)	40명 (7.6%)	9명 (6.8%)	0명 (0.0%)	0명 (0.0%)	0명 (0.0%)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2명 (8.3%)	56명 (10.6%)	20명 (15.2%)	7명 (7.6%)	1명 (2.3%)	0명 (0.0%)
3. 보통이다.	15명 (62.5%)	129명 (24.4%)	25명 (18.9%)	11명 (12.0%)	9명 (20.5%)	3명 (37.5%)
4. 다소 차별적이다.	3명 (12.5%)	109명 (20.6%)	36명 (27.3%)	24명 (26.1%)	7명 (15.9%)	5명 (62.5%)
5. 매우 차별적이다.	2명 (8.3%)	194명 (36.7%)	42명 (31.8%)	50명 (54.3%)	27명 (61.4%)	0명 (0.0%)
4+5점 합산	**5명 (20.8%)**	**303명 (57.4%)**	**78명 (59.1%)**	**74명 (80.4%)**	**34명 (77.3%)**	**5명 (62.5%)**

2-3. 성별 응답 결과 분석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에 대한 성별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해당 표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소 차별적이다(4점)'와 '매우 차별적이다(5점)'를 합산한 응답률은 여성이 66.8%(374명), 남성이 47.3%(125명)로 나타나 19.5%p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표현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보다도 더 큰 격차로, 외모와 신체 조건에 관한 표현에 대해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매우 차별적이다(5점)'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43.2%, 남성이 27.7%로 15.5%p의 차이를 보여, 여성이 외모나 신체 조건을 평가하는 언어 표현을 보다 심각한 차별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1점)'와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2점)'를 선택한 비율은 남성이 각각 15.5%, 15.5%로 여성의 1.8%, 8.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외모 관련 표현을 칭찬이나 친근한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거나, 차별적 의미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일부 존재함을 보여준다.

'보통이다(3점)' 응답은 남성 21.6%, 여성 23.4%로 두 집단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외모와 관련된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차별 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모 평가나 신체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여성에게 사회적 기준과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관련 표현의 차별성을 더욱 민감하게 인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은 동일한 표현을 일상적인 칭찬이나 대화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외모 관련 언어 표현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6.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성별 응답 결과

척도	남성	여성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41명 (15.5%)	10명 (1.8%)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41명 (15.5%)	45명 (8.0%)
3. 보통이다.	57명 (21.6%)	131명 (23.4%)
4. 다소 차별적이다.	52명 (19.7%)	132명 (23.6%)
5. 매우 차별적이다.	73명 (27.7%)	242명 (43.2%)
4+5점 합산	**125명 (47.3%)**	**374명 (66.8%)**

3.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

3-1. 설문 항목별 응답 결과 분석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 7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2.7%가 '다소 차별적이다(4점)' 또는 '매우 차별적이다(5점)'라고 응답하여 연령이나 세대를 일반화하거나 고정관념을 반영한 표현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표현(75.4%)보다는 낮고,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60.3%)과는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문항별로는 (4)번 「요즘 MZ세대는 참 눈치가 없어.」가 4·5점 합산 응답률 80.2%(16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 세대를 하나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표현에 대해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3)번 「언제 결혼해? 이제 나이가 차지 않았어?」가 73.4%(152명), 「역시 MZ라 다르구나.」가 71.0%(147명), (2)번「젊은 사람이 왔네... 난 나이 많은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가 62.3%(129명)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연령에 따라 삶의 과정을 규정하거

나 특정 세대의 특성을 일반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차별적인 언어 표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1)번 「나이도 어린데 일 잘하네요.」는 4·5점 합산 응답률이 42.0%(87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3점)' 응답도 29.0%(60명)를 차지하였다. 이는 해당 표현이 연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상대방을 칭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차별적 표현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6)번 「나 나이 들었나 봐. 이렇게 말하면 꼰대로 보이려나.」와 (7)번 「영포티, 올드머니」 관련 문항은 각각 55.1%(114명), 54.6%(113명)가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두 문항 모두 과반수가 차별성을 인식하였으나, '보통이다(3점)' 응답이 각각 29.0%, 30.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최근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는 신조어나 자기표현의 성격을 가진 표현에 대해서는 차별 여부에 대한 인식이 다소 다양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특정 연령이나 세대를 부정적으로 일반화하거나 연령을 기준으로 개인의 행동과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칭찬이나 일상적인 대화, 또는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 형태의 표현에 대해서는 차별 여부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 역시 사용되는 사회적 맥락과 표현의 의도에 따라 차별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7. 연령 및 세대 관련 설문 항목별 응답 결과

문항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다소 차별적이다.	5. 매우 차별적이다.	4+5점 합산
(1) 나이도 어린데 일 잘하네요.	15명 (7.2%)	45명 (21.7%)	60명 (29.0%)	49명 (23.7%)	38명 (18.4%)	**87명 (42.0%)**
(2) 젊은 사람이 왔네...난 나이 많은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6명 (2.9%)	18명 (8.7%)	54명 (26.1%)	76명 (36.7%)	53명 (25.6%)	**129명 (62.3%)**
(3) 언제 결혼해? 이제 나이가 차지 않았어?	4명 (1.9%)	9명 (4.3%)	42명 (20.3%)	64명 (30.9%)	88명 (42.5%)	**152명 (73.4%)**
(4) 요즘 MZ세대는 참 눈치가 없어.	4명 (1.9%)	10명 (4.8%)	27명 (13.0%)	72명 (34.8%)	94명 (45.4%)	**166명 (80.2%)**
(5) 역시 MZ라 다르구나.	2명 (1.0%)	12명 (5.8%)	46명 (22.2%)	73명 (35.3%)	74명 (35.7%)	**147명 (71.0%)**
(6) 나 나이 들었나 봐 이렇게 말하면 꼰대로 보이려나.	12명 (5.8%)	21명 (10.1%)	60명 (29.0%)	54명 (26.1%)	60명 (29.0%)	**114명 (55.1%)**
(7) 영포티[3], 올드머니[4]	16명 (7.7%)	15명 (7.2%)	63명 (30.4%)	58명 (28.0%)	55명 (26.6%)	**113명 (54.6%)**
전체	**59명 (4.1%)**	**130명 (9.0%)**	**352명 (24.3%)**	**446명 (30.8%)**	**462명 (31.9%)**	**908명 (62.7%)**

3) 젊게 사는 요즘 40대 중년을 일컫는 신조어
4) 세대를 거듭해 상속받은 재산을 가리킴

3-2. 세대별 응답 결과 분석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에 대한 세대별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과반수가 해당 표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별 인식 수준에는 다소 차이가 확인되었다. '다소 차별적이다(4점)'와 '매우 차별적이다(5점)'를 합산한 응답률은 10대 47.6%, 20대 63.2%, 30대 54.1%, 40대 73.9%, 50대 66.2%, 60대 이상 64.3%로 집계되었다.

특히 40대는 73.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소 차별적이다(4점)' 응답 비율이 47.2%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정 연령이나 세대를 일반화하는 표현에 대해 40대가 가장 높은 수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50대는 66.2%, 60대 이상은 64.3%, 20대는 63.2%가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여 세 연령층 모두 60% 이상의 높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특히 20대는 본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포함된 연령층으로, 대학 구성원의 주된 연령대에서도 세대를 일반화하거나 연령을 기준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표현에 대해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30대는 54.1%로 과반수가 차별적이라고 응답했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보통이다(3점)' 응답이 20.8%로 나타나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차별 여부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10대는 4·5점 합산 응답률이 47.6%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3점)' 응답이 52.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연령 및 세대와 관련된 표현을 명확한 차별로 인식하기보다는 일상적인 표현이나 농담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시사한다.

60대 이상은 4·5점 합산 응답률이 64.3%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본 조사에서 60대 이상 응답자가 매우 적어(2명) 표본 규모의 한계가 크게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결과를 전체 60대 이상 구성원의 인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10대 역시 응답자 수가 적어(6명) 동일한 해석상의 유의가 요구된다.

종합하면,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차별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특히 40대~60대 이상에서 60% 이상의 높은 인식 수준이 확인되었다. 반면 10대에서는 중립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다만 10대와 60대 이상은 표본 규모가 매우 적어 해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는 연령과 세대를 일반화하는 언어 표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세대별 경험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인식 수준에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표 3-8. 연령 및 세대 관련 세대별 응답 결과

척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0명 (0.0%)	32명 (3.5%)	21명 (9.1%)	3명 (1.9%)	3명 (3.9%)	0명 (0.0%)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0명 (0.0%)	76명 (8.2%)	37명 (16.0%)	14명 (8.7%)	3명 (3.9%)	0명 (0.0%)
3. 보통이다	22명 (52.4%)	232명 (25.1%)	48명 (20.8%)	25명 (15.5%)	20명 (26.0%)	5명 (35.7%)

4. 다소 차별적이다	8명 (19.0%)	260명 (28.1%)	74명 (32.0%)	76명 (47.2%)	19명 (24.7%)	9명 (64.3%)
5. 매우 차별적이다	12명 (28.6%)	324명 (35.1%)	51명 (22.1%)	43명 (26.7%)	32명 (41.6%)	0명 (0.0%)
4+5점 합산	**20명 (47.6%)**	**584명 (63.2%)**	**125명 (54.1%)**	**119명 (73.9%)**	**51명 (66..2%)**	**9명 (64.3%)**

3-3. 성별 응답 결과 분석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에 대한 성별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해당 표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소 차별적이다(4점)'와 '매우 차별적이다(5점)'를 합산한 응답률은 여성이 67.1%(658명), 남성이 52.8%(244명)로 나타나 14.3%p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령 및 세대와 관련된 표현에 대해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매우 차별적이다(5점)'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36.3%, 남성이 22.5%로 13.8%p의 차이를 보여, 여성이 연령이나 세대를 일반화하거나 고정관념을 담은 표현을 보다 심각한 차별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1점)'와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2점)'를 선택한 비율은 남성이 각각 9.3%, 15.6%로 여성의 1.6%, 5.9%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을 일상적인 대화나 관용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보통이다(3점)'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22.3%, 여성이 25.3%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두 집단 모두 일정 비율이 차별 여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일부 표현이 친근한 농담이나 일상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표현의 맥락에 따라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연령이나 세대를 일반화하거나 고정관념을 부여하는 표현이 개인의 특성을 연령만으로 규정하거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이 이러한 표현의 문제성을 보다 민감하게 인식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남성은 동일한 표현을 일상적인 대화나 관용적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 및 세대 관련 언어 표현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9. 연령 및 세대 관련 성별 응답 결과

척도	남성	여성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43명 (9.3%)	16명 (1.6%)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72명 (15.6%)	58명 (5.9%)
3. 보통이다.	103명 (22.3%)	248명 (25.3%)

4. 다소 차별적이다.	140명 (30.3%)	302명 (30.8%)
5. 매우 차별적이다.	104명 (22.5%)	356명 (36.3%)
4+5점 합산	**244명 (52.8%)**	**658명 (67.1%)**

4. 장애 관련 표현

4-1. 설문 항목별 응답 결과 분석

장애 관련 표현 4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62.3%가 '다소 차별적이다(4점)' 또는 '매우 차별적이다(5점)'라고 응답하여 장애와 관련된 언어 표현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표현(75.4%)보다는 낮지만,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60.3%),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62.7%)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문항별로는 (3)번 「장애인인데 운전도 하시네요.」가 4·5점 합산 응답률 85.0%(17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능력을 장애 여부만으로 제한적으로 판단하거나, 일상적인 활동을 예외적인 것으로 바라보는 표현에 대해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매우 차별적이다(5점)' 응답이 57.5%로 모든 문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한 표현의 문제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4)번 「장애인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는 4·5점 합산 응답률이 69.1%(143명)로 나타났다. 이 표현은 격려의 의도를 담고 있지만, 장애인을 일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장애 자체를 극복의 대상으로 전제하는 인식을 포함할 수 있어 차별적인 표현으로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1)번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업가이십니다.」와 (2)번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벙어리장갑이랑 목도리를 준비했어.」는 각각 47.3%(98명), 47.8%(99명)가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문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두 문항 모두 '보통이다(3점)' 응답이 각각 28.0%, 20.8%로 나타나 차별 여부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업가이십니다.」는 장애인의 성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응답이 있는 반면, 장애를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인식한 응답도 함께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벙어리장갑」은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온 명칭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인식하지 못한 응답도 있었으나, 장애를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 표현으로 인식한 응답 역시 적지 않았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장애인의 능력을 일반화하거나 장애를 기준으로 개인을 평가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나 긍정적인 의도를 담은 표현에 대해서는 차별 여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

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장애 관련 언어 표현은 표현의 의도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3-10. 장애 관련 설문 항목별 응답 결과

조사 문항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다소 차별적이다.	5. 매우 차별적이다.	4+5점 합산
(1)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업가 이십니다.	19명 (9.2%)	32명 (15.5%)	58명 (28.0%)	49명 (23.7%)	49명 (23.7%)	**98명 (47.3%)**
(2)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벙어리장갑이랑 목도리를 준비했어.	42명 (20.3%)	23명 (11.1%)	43명 (20.8%)	50명 (24.2%)	49명 (23.7%)	**99명 (47.8%)**
(3) 장애인인데 운전도 하시네요.	4명 (1.9%)	7명 (3.4%)	20명 (9.7%)	57명 (27.5%)	119명 (57.5%)	**176명 (85.0%)**
(4) 장애인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8명 (3.9%)	17명 (8.2%)	39명 (18.8%)	62명 (30.0%)	81명 (39.1%)	**143명 (69.1%)**
전체	**73명 (8.8%)**	**79명 (9.5%)**	**160명 (19.3%)**	**218명 (26.3%)**	**298명 (36.0%)**	**516명 (62.3%)**

4-2. 세대별 응답 결과 분석

장애 관련 표현에 대한 세대별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과반수가 해당 표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 차별적이다(4점)'와 '매우 차별적이다(5점)'를 합산한 응답률은 10대 41.7%, 20대 64.4%, 30대 53.8%, 40대 69.5%, 50대 61.3%, 60대 이상 50.0%로 집계되었다.

특히 40대는 69.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매우 차별적이다(5점)' 응답도 38.0%로 나타나 장애와 관련된 표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20대는 64.4%, 50대는 61.3%가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여, 장애를 개인의 능력이나 가능성과 연결해 평가하는 표현에 대해 비교적 높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53.8%가 차별적이다라고 응답하여 과반수가 장애 관련 표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였으나,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보통이다(3점)' 응답이 23.5%로 나타나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차별 여부를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10대는 41.7%가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3점)' 응답이 41.7%로 동일한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장애 관련 표현을 명확한 차별로 인식하기보다는 표현의 의도나 사용 맥락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시사한다.

한편 60대 이상은 4·5점 합산 응답률이 50.0%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 60대 이상 응답자는 2명으로 표본 규모가 매우 적어 결과를 전체 연령층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합하면, 장애 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차별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과반수를 넘었으며, 특히 40대와 20대에서 높은 수준의 차별성 인식이 확인되었다. 반면 10대는 중

립적인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60대 이상은 표본 규모가 매우 적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장애 관련 언어 표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세대별 경험과 장애에 대한 이해 수준, 표현을 접하는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인식 수준에 다소 차이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표 3-11. 장애 관련 세대별 응답 결과

척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1명 (4.2%)	42명 (8.0%)	16명 (12.1%)	6명 (6.5%)	7명 (15.9%)	1명 (12.5%)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3명 (12.5%)	47명 (8.9%)	14명 (10.6%)	9명 (9.8%)	5명 (11.4%)	1명 (12.5%)
3. 보통이다	10명 (41.7%)	99명 (18.8%)	31명 (23.5%)	13명 (14.1%)	5명 (11.4%)	2명 (25.0%)
4. 다소 차별적이다	6명 (25.0%)	138명 (26.1%)	28명 (21.2%)	29명 (31.5%)	13명 (29.5%)	4명 (50.0%)
5. 매우 차별적이다	4명 (16.7%)	202명 (38.3%)	43명 (32.6%)	35명 (38.0%)	14명 (31.8%)	0명 (0.0%)
4+5점 합산	**10명 (41.7%)**	**340명 (64.4%)**	**71명 (53.8%)**	**64명 (69.5%)**	**27명 (61.3%)**	**4명 (50.0%)**

4-3. 성별 응답 결과 분석

장애 관련 표현에 대한 성별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해당 표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소 차별적이다(4점)'와 '매우 차별적이다(5점)'를 합산한 응답률은 여성이 69.6%(390명), 남성이 46.6%(123명)로 나타나 23.0%p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금까지 분석한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외모 및 신체 조건,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보다도 성별 간 인식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이다.

특히 '매우 차별적이다(5점)'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42.7%, 남성이 22.3%로 20.4%p의 차이를 보여, 여성이 장애와 관련된 언어 표현을 보다 심각한 차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1점)'와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2점)'를 선택한 비율은 남성이 각각 18.6%, 16.7%로 여성의 4.3%, 6.3%보다 크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장애 관련 표현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나 관용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보통이다(3점)' 응답은 남성이 18.2%, 여성이 19.8%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일부 장애 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표현의 의도나 사용 맥락에 따라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응답자가 일정 수준 존재함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장애 관련 표현에 대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담긴 언어 표현의 문제성을 여성이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남성은 동일한 표현을 관용적이거

나 일상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장애 관련 언어 표현에 대한 성별 간 인식 차이가 다른 영역보다 더욱 크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를 둘러싼 언어 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포용적 의사소통 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고려한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12. 장애 관련 성별 응답 결과

척도	남성	여성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49명 (18.6%)	24명 (4.3%)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44명 (16.7%)	35명 (6.3%)
3. 보통이다.	48명 (18.2%)	111명 (19.8%)
4. 다소 차별적이다.	64명 (24.2%)	151명 (27.0%)
5. 매우 차별적이다.	59명 (22.3%)	239명 (42.7%)
4+5점 합산	**123명 (46.6%)**	**390명 (69.6%)**

5.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관련 표현

5-1. 설문 항목별 응답 결과 분석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관련 표현 5개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80.8%가 '다소 차별적이다(4점)' 또는 '매우 차별적이다(5점)'라고 응답하여, 본 조사의 5개 영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차별성 인식을 보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직업, 학력 및 출신 배경을 근거로 개인을 평가하거나 일반화하는 언어 표현을 매우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항별로는 (5)번 「지방대 출신이라...」가 4·5점 합산 응답률 87.9%(182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신 대학을 기준으로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를 평가하거나 편견을 형성하는 표현에 대해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매우 차별적이다(5점)' 응답도 50.7%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력과 출신 배경에 대한 편견을 담은 표현의 문제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2)번「알바생이 뭘 알아.」는 86.0%(178명), (3)번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해.」는 80.7%(167명), (1)번 「치킨을 시켜 먹는 사람이 되고 싶지, 배달하고 싶지는 않지.」는 74.9%(155명), (4)번 「역시 ○○과 출신이라 똑똑하네요.」는 74.4%(154명)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특히 (2)번 「알바생이 뭘 알아.」와 (1)번 「치킨을 시켜 먹는 사람이 되고 싶지, 배달하고 싶

지는 않지.」는 특정 직업을 사회적 지위나 능력과 연결하여 평가하는 표현이며, (3)번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해.」와 (4)번 「역시 ○○과 출신이라 똑똑하네요.」는 학력이나 전공을 개인의 능력과 동일시하거나 일반화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응답자들이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응답을 살펴보면 '매우 차별적이다(5점)' 응답이 46.9%로 모든 영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1점)'와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2점)' 응답은 각각 1.6%, 3.6%에 불과하였다. 이는 직업, 학력 및 출신 배경을 이유로 개인을 평가하거나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는 언어 표현에 대해 응답자 대부분이 명확하게 차별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응답자들은 직업, 학력 및 출신 배경을 근거로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를 판단하거나 사회적 우열을 암시하는 표현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의 다섯 개 영역 가운데 가장 높은 인식 수준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직업과 학력, 출신 배경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담은 언어 표현의 문제성을 가장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력과 직업, 출신 배경에 따른 편견을 줄이고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식 개선과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표 3-13.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관련 설문 항목별 응답 결과

조사 문항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다소 차별적이다.	5. 매우 차별적이다.	4+5점 합산
(1) 치킨을 시켜 먹는 사람이 되고 싶지, 배달하고 싶지는 않지.	7명 (3.4%)	16명 (7.7%)	29명 (14.0%)	55명 (26.6%)	100명 (48.3%)	**155명 (74.9%)**
(2) 알바생이 뭘 알아.	0명 (0.0%)	4명 (1.9%)	25명 (12.1%)	81명 (39.1%)	97명 (46.9%)	**178명 (86.0%)**
(3)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해.	2명 (1.0%)	2명 (1.0%)	36명 (17.4%)	69명 (33.3%)	98명 (47.3%)	**167명 (80.7%)**
(4) 역시 00과 출신이라 똑똑하네요.	6명 (2.9%)	12명 (5.8%)	35명 (16.9%)	69명 (33.3%)	85명 (41.1%)	**154명 (74.4%)**
(5) 지방대 출신이라...	2명 (1.0%)	3명 (1.4%)	20명 (9.7%)	77명 (37.2%)	105명 (50.7%)	**182명 (87.9%)**
전체	**17명 (1.6%)**	**37명 (3.6%)**	**145명 (14.0%)**	**351명 (33.9%)**	**485명 (46.9%)**	**836명 (80.8%)**

5-2. 세대별 응답 결과 분석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관련 표현에 대한 세대별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해당 표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소 차별적이다(4점)'와 '매우 차별적이다(5점)'를 합산한 응답률은 10대 46.7%, 20대 81.1%, 30대 73.3%, 40대 91.3%, 50대 92.7%, 60대 이상 100.0%로 집계되었다.

특히 50대는 92.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매우 차별적이다(5점)' 응답도 67.3%로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40대는 91.3%, 20대는 81.1%가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여, 직업이나 학력, 출신 배경을 근거로 개인을 평가하는 표현에 대해 매우 높은 수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0대는 73.3% 가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여 다른 연령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여전히 응답자의 약 4명 중 3명이 해당 표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과 학력, 출신 배경에 대한 고정관념을 담은 언어 표현이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10대는 46.7%가 차별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다(3점)' 응답이 5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과 관련된 표현을 명확한 차별로 판단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거나, 표현의 차별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시사한다. 다만 10대의 응답자 수가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60대 이상은 4·5점 응답률이 100.0%로 나타났으나, 본 조사에서 60대 이상 응답자는 2명에 불과하여 표본 규모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해당 결과를 전체 60대 이상의 인식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참고 수준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관련 표현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40대와 50대에서 90% 이상의 매우 높은 인식 수준이 확인되었다. 또한 20대 역시 80% 이상의 응답자가 차별적이라고 인식하여, 대학 구성원의 주된 연령층에서도 직업과 학력, 출신 배경에 따른 편견을 담은 언어 표현의 문제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조사의 다섯 개 영역 중에서도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직업과 학력, 출신 배경에 따른 고정관념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3-14.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세대별 응답 결과

척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0명 (0.0%)	10명 (1.5%)	6명 (3.6%)	0명 (0.0%)	1명 (1.8%)	0명 (0.0%)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0명 (0.0%)	24명 (3.6%)	9명 (5.5%)	2명 (1.7%)	2명 (3.6%)	0명 (0.0%)
3. 보통이다.	16명 (53.3%)	91명 (13.8%)	29명 (17.6%)	8명 (7.0%)	1명 (1.8%)	0명 (0.0%)
4. 다소 차별적이다.	5명 (16.7%)	218명 (33.0%)	66명 (40.0%)	38명 (33.0%)	14명 (25.4%)	10명 (100.0%)
5. 매우 차별적이다.	9명 (30.0%)	317명 (48.0%)	55명 (33.3%)	67명 (58.2%)	37명 (67.3%)	0명 (0.0%)
4+5점 합산	**14명 (46.7%)**	**535명 (81.1%)**	**121명 (73.3%)**	**105명 (91.3%)**	**51명 (92.7%)**	**10명 (100.0%)**

5-3. 성별 응답 결과 분석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관련 표현에 대한 성별 응답 결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해당 표현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소 차별적이다(4점)'와 '매우 차별적이다(5점)'를 합산한 응답률은 여성이 84.1%(589명), 남성이 73.3%(242명)로 나타나 10.8%p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녀 모두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과 관련된 표현을 높은 수준의 차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여성이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매우 차별적이다(5점)'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52.9%, 남성이 33.9%로 19.0%p의 차이를 보여, 여성이 직업이나 학력, 출신 배경을 근거로 개인을 평가하거나 일반화하는 표현을 보다 심각한 차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반면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1점)'와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2점)'를 선택한 비율은 남성이 각각 4.5%, 7.0%로 여성의 0.3%, 2.0%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해당 표현을 관용적인 표현이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비율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

'보통이다(3점)' 응답은 남성 15.2%, 여성 13.6%로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과 관련된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성별과 관계없이 차별 여부를 상황이나 표현의 의도에 따라 판단하는 응답자도 일정 수준 존재함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관련 표현은 남녀 모두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인식하는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의 직업, 학력, 출신 학교 또는 지역을 기준으로 능력과 가치를 판단하거나 사회적 우열을 암시하는 언어 표현이 현대 사회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본 조사의 다섯 개 영역 중에서도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관련 표현은 남녀 모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차별성 인식이 나타난 영역으로, 대학 구성원들이 해당 표현의 문제성을 폭넓게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과 학력, 출신 배경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의 언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표 3-15.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성별 응답 결과

척도	남성	여성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15명 (4.5%)	2명 (0.3%)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23명 (7.0%)	14명 (2.0%)
3. 보통이다.	50명 (15.2%)	95명 (13.6%)
4. 다소 차별적이다.	130명 (39.4%)	219명 (31.3%)
5. 매우 차별적이다.	112명 (33.9%)	370명 (52.9%)
4+5점 합산	**242명 (73.3%)**	**589명 (84.1%)**

6. 기타 자유서술 응답 분석

설문 마지막에 제시된 주관식 문항("일상에서 차별적이라고 느낀 표현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총 27건 가운데 6건(22.2%)은 "없다", "딱히 없다" 등 특별한 사례가 없다는 응답이었으며, 나머지 21건(77.8%)은 실제 경험한 차별적 표현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과 관련된 응답이 14건(51.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여자답게 행동해", "무거운 건 남자가 들어야지", "여성의 유리천장", "여긴 여자가 사장이네", 특정인을 '테토', '에겐'으로 지칭하는 사례 등이 언급되었다. 이는 객관식 문항의 4·5점 합산 응답률에서는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관련 표현(80.8%)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실제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체감되는 차별 유형은 성별 관련 표현임을 시사한다.

이어 연령 및 세대 관련 응답은 3건(11.1%)으로 나타났다.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받는 경험이 차별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와 같이 연령을 근거로 한 무시나 배제 경험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었으며, 이는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에 대한 응답자들의 문제의식(4·5점 합산 62.7%)이 실제 경험과도 맞닿아 있음을 뒷받침한다.

한편 본 조사의 5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응답도 확인되었다. "너는 F라서 그래"라는 응답은 MBTI 성격유형을 근거로 개인의 성향을 단정 짓는 표현으로, 최근 대학생 사이에서 성격유형 검사 결과가 일종의 낙인이나 일반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선택장애, ADHD 등 차별적 표현을 일상에서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응답은 본 조사의 장애 관련 문항(4개)과는 별개로, 의학적 진단명이나 증상을 성격 특성처럼 비유적으로 오남용하는 언어 습관을 지적한 것으로, 장애 관련 차별 표현의 또 다른 유형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자유서술 응답은 객관식 문항으로 다루지 못한 실제 경험 사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으며, 특히 성별 고정관념 표현이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체감되는 차별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MBTI 성격유형에 대한 낙인이나 장애 관련 용어의 비유적 오남용과 같이 본 조사의 5개 영역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차별 표현 유형이 발견되어, 향후 조사에서는 이러한 영역을 추가로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인식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Ⅳ. 조사의 한계

본 조사는 한림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조사 결과를 모든 대학 구성원이나 일반 사회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또한 응답자의 63.8%가 20대로 구성되어 있어 연령대별 비교 결과는 표본 분포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10대와 60대 이상의 응답자는 표본 수가 적어 해당 연령층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응답자 중 여성이 67.6%, 남성이 31.9%로 성별 간 응답자 수의 차이가 있어, 성별 비교 결과 역시 이러한 표본 구성을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조사는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이므로 실제 언어 사용 행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일한 표현이라도 개인의 경험, 대화의 맥락, 사용 의도 등에 따라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연령대별·성별 참여 인원의 균형을 확보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구성원의 인식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조사는 한림대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차별 언어 표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문항별로 파악하고, 이를 세대 및 성별에 따라 비교·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총 207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대학 구성원들은 전반적으로 성별, 외모, 연령, 장애,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과 관련된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분석 결과, 직업·학력 및 출신 배경 관련 표현(80.8%)이 가장 높은 차별성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성별 및 젠더 고정관념 관련 표현(75.4%), 연령 및 세대 관련 표현(62.7%), 장애 관련 표현(62.3%),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6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업과 학력, 출신 배경을 근거로 개인의 능력이나 가치를 평가하거나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차별적인 언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문항별로는「지방대 출신이라...」,「알바생이 뭘 알아.」,「장애인인데 운전도 하시네요.」,「요즘 MZ세대는 참 눈치가 없어.」,「아가씨가 나왔네... 이건 전문가가 나와야 하는데.」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포함한 표현이 높은 수준의 차별성을 보였다. 반면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나 일상적인 칭찬의 형태로 사용되는 일부 표현은 차별 여부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언어 표현의 차별성에 대한 판단이 표현 자체뿐 아니라 사용 맥락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대별 분석에서는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차별적 언어 표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40~50대에서 차별성을 높게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10대는 '보통이다'라는 응답 비율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아, 일부 표현에 대해 차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다만 10대와 60대 이상은 응답자 수가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성별 분석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차별적 언어 표현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애 관련 표현과 외모 및 신체 조건 관련 표현에서는 성별 간 인식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한 언어 표현이라도 개인의 경험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별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주관식 응답 분석 결과, 본 조사의 5개 영역 외에도 MBTI 성격유형에 대한 낙인이나

장애 관련 용어의 비유적 오남용과 같은 새로운 차별 표현 유형이 확인되어, 향후 조사에서 다룰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종합하면, 대학 구성원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 표현에도 차별적 요소가 포함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정 집단을 일반화하거나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사회에서 상호 존중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언어문화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제언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많은 응답자가 일상적인 표현 속에도 차별적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포용적 언어 사용과 다양성 존중을 주제로 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한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부 표현은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특정 집단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원들이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을 점검하고 대체 표현을 안내하는 실천 중심의 프로그램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세대와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동일한 표현이라도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별성 인식 수준에 차이가 나타난 만큼,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구성원 간 상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포용적 의사소통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차별적 언어 표현을 줄이는 것은 특정 표현을 금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대학은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꾸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향후 조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조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 다루지 못한 MBTI 성격유형에 대한 낙인이나 장애 관련 용어의 비유적 오남용 등 새로운 차별 표현 유형을 조사 문항에 반영하고, 연령대별·성별 참여 인원의 균형을 고려한 표본 설계를 통해 보다 정교한 후속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AI 활용 고지

본 보고서는 조사 설계, 설문 실시, 자료 수집 및 기초 통계 분석을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다.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ChatGPT, OpenAI GPT-5.5)을 활용하여 초안 작성 및 문장 표현 개선에 대한 보조를 받았으며, Claude(Anthropic)를 활용하여 통계 수치 검증 및 결과 해석의 구조화, 문체 정리에 대한 보조를 받았다. 보고서의 최종 검토와 수정, 결과 해석의 타당성 확인 및 최종 책임은 연구자가 수행하였다.

[부록]

차별적 표현 인식조사 설문지

■ 조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대학 구성원들의 일상 속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인식 수준과 세대별 인식차이를 파악하여, 포용적 언어문화 확산과 다양성 존중 교육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 문항에는 차별적이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식 조사를 위한 예시 문장일 뿐, 실제로 그러한 표현을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며,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결과는 통계적 요약 형태로만 보고서 및 캠페인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참여는 자발적이며,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참여 동의

[필수 문항] 설문 참여에 동의하십니까?

□ 예, 참여에 동의합니다.

□ 아니오, 참여를 원하지 않습니다. (*선택 시 설문 종료*)

■ 다음 항목별로 귀하가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 해 주십시오.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③ 기타/응답하고 싶지 않음	**연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 각 문항을 읽고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체크 해 주십시오.

문항	**1. 전혀 차별적이지 않다.**	**2. 차별적이지 않은 편이다.**	**3. 보통이다.**	**4. 다소 차별적이다.**	**5. 매우 차별적이다.**
(1) 여자치고 운동 정말 잘하네요.					
(2) 역시 여직원이 있어서 사무실이 화사하네.					
(3) 여자 부장인데, 일 정말 잘해!					
(4) 남자인데 엄청 꼼꼼하시네요.					
(5) 남자가 왜 이렇게 소심해.					
(6) 와~남자 간호사 보기 드문데.					
(7) 너는 우리 가게 비주얼 담당이잖아.					

(8) 살 빼니까 인간 됐네, 완전 보기 좋다.					
(9)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 소개팅 있어요?					
(10) 외모가 경쟁력이지.					
(11) 나이도 어린데 일 잘하네요.					
(12) 젊은 사람이 왔네...난 나이 많은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13) 언제 결혼해? 이제 나이가 차지 않았어?					
(14) 요즘 MZ세대는 참 눈치가 없어.					
(15) 장애를 극복하고 성공한 사업가이십니다.					
(16)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벙어리장갑이랑 목도리를 준비했어.					
(17) 장애인인데 운전도 하시네요.					
(18) 장애인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19) 아가씨가 나왔네...이건 전문가가 나와야 하는데.					
(20) 치킨을 시켜 먹는 사람이 되고 싶지, 배달하고 싶지는 않지.					
(21) 알바생이 뭘 알아.					
(22) 무조건 대학은 나와야 해.					
(23) 역시 00과 출신이라 똑똑하네요.					
(24) 지방대 출신이라...					
(25) 역시 MZ라 다르구나.					
(26) 나 나이 들었나 봐 이렇게 말하면 꼰대로 보이려나.					
(27) 에겐남, 테토녀					
(28) 영포티*, 올드머니**					

*젊게 사는 요즘 40대 중년을 일컫는 신조어

**세대를 거듭해 상속받은 재산을 가리킴

■ 기타 질문

· 일상에서 차별적이라고 느낀 표현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 )